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COLLEGE

가난 탈출 갈수록 어려워진다 ▶2
5·18 아카이브 ‘반쪽 개관’ 불가피 ▶7
지역 문화판을 바꾸는 사람들-박시훈 ‘결’ 대표 ▶1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8111
kwangju.co.kr
제19652호 1판 2014년 1월 8일 수요일 (음력 12월 8일)

부산驛 관광객 북적…대구 쇼핑·의료 역외 유출 ‘KTX 희비’

광주·전남 미래 바꿀 3대 役事 완공의 해 〈4〉

호남고속철 ③ 경부고속철 10년, 부산·대구 가보니

부산시 관광산업 대호황
병원 유입 환자 되레 늘어
대구, 서울로 부산으로
‘이중 빨대 효과’ 심화

KTX 경부선(총 길이=409.8㎞) 개통 10년을 3개월여 앞둔 지난 2일 방문한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역. 출·퇴근시간도 아닌 평일 낮 오후 2시께인데도 역사(驛舍) 안팎은 오가는 인파로 북적였다. 식당가는 등산복 차림의 20~50대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관련기사 3면〉

택시 승강장에선 택시가 멈춰서기 무섭게 승객들을 태우고 내달렸다. 택시운전기사 김모(45)씨는 “3년 전 KTX 2단계 구간마저 개통되면서 부산역을 찾는 손님이 많아진 것 같다. 부산역에서 타는 손님은 광안리나 해운대 등 관광지를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12월 부산·서울 간 KTX 2단계(동대구~부산역=130.8㎞) 구간이 완전 개통되면서 부산역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10만3723명으로 개통 이전 8만2823명보다 2만900명 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현재 운영 중인 8대의 시티투어버스를 3대 더 추가로 도입했다. 또 KTX와 연계한 부산형 관광택시 도입도 검토하는 등 KTX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었다.

부산시는 의료부분에선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고, 부산의 강점으로 꼽히는 관광부분을 강화해 KTX개통 전 우려됐던 부작용을 막아내고 있었다. 특히 수도권 쏠림이 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료분야는 암 등 특정질환자를 제외하곤, 오히려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환자가 늘면서 의료업이 제2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같은 날 오후 4시께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역사 안은 식당·커피숍 등이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역사 밖으로 나오자 식당·편의점·렌트·병원 등 각종 시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부산역과는 달리 택시가 200m 가량 길게 늘어서 있었고, 불법 주정차한 자가용과 뒤엉키면서 이 일대는 거대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동대구역은 지난 2010년 12월 KTX 2단계 완전 개통되면서 승객이 부쩍 늘었다. 동대구~서울 구간 소요시간이 기존 4시간30분에서 1시간 50분으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개통 후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5만 명. 이용객 수는 해마다 10%씩 증가하는 추세다.

택시 승강장 앞에서 만난 박모(35)씨는 “이용객 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아직까지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 같다”며 “소요시간이 줄어들면서 수도권에 집을 두고 평일엔 대구에서 근무하면서 금요일에 귀가하는 ‘금귀월래’(金歸月來)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역이 지난 2010년 개통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동대구~부산)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2단계 구간이 완전 개통되면서 크게 확장된 부산역(연면적 4만3000㎡)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10만3723명으로 개통 이전 8만2823명보다 2만명 이상 늘었다. /부산=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대구시는 유통·쇼핑·의료부분에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빨대 효과’를 염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관광부분에선 대구보다 부산을 비롯한 경북 포항역·구포·울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구지역은 KTX개통 효과를 체감하기는커녕 부작용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구는 부산과 달리 의료분야에서도 수도권에 밀집된 빅4(서울아산, 삼성, 연세대 세브란스, 서울대병원)로의 쏠림현상뿐 아니라 부산으로 유출되는 현상까지 겹치면서 지역 의료산업의 붕괴를 걱정해야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었다.

/부산·대구=이종행기자 golee@

우리금융 “조특법 개정 안되면 못 팔아”

광주은행 매각 새국면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이 중단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바꿨다고 7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분할계획서는 분할 철회 조건을 ‘매각이 중단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매각이 중단되거나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변경했다.

매각이 중단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두 지방은행을 분리할 때 우리금융에 부과되는 세금 6500여억원을 감면하도록 조특법 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금융은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고려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하려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경남·광주은행을 3월 1일까지 분할한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KNB금융지주(가칭)와 KJB금융지주(가칭)로 독립해 매각된다.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 분할에 따른 자본 감소(16.1%)와 구주권 제출, 매매거래 정지를 거쳐 3월17일 재상장된다. KNB금융과 KJB금융도 같은 날 신규상장된다. 이 같은 절차는 이달 28일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공자위는 지난달 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를 선정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금융 이사회가 실제로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중단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막대한 세금 부과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피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2014년도 제2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 2014년 1월 10(금)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062)605-1112

국립亞문화전당 예술감독 3명 추가 선임

민주평화교류원 황지우
亞문화정보원 김선정
어린이문화원 김혁진

오는 2015년 개관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예술감독 3명이 추가로 선임됐다. 기존에 선임된 예술감독 2명에 이들이 추가돼 문화전당 5개원을 꾸려갈 예술감독 5명이 모두 선정됐다.

7일 광주지역 문화계 인사들에 따르면 최근 황지우 한국예술학교 극작과 교수, 김선정 전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을 각각 민주평화교류원과 아시아문화정보원 예술감독으로 선정했다. 김혁진 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연구위원은 어린이문화원 예술감독을 맡게됐다.

황지우 교수는 민주평화교류원의 개관콘텐츠를 마련했고, 김선정 전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은 제9회 광주비엔날레를 치렀다. 김혁진 연구위원은 현재 여성가족부 청소년프로그램 평가위원을 맡는 등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기존에 선임된 이영철 문화창조원 예술감독, 김성희 공연예술감독과 함께 아시아문화전당 5개원의 운영 프로그램을 짜고 전시 기획안 등을 마련한다.

황지우

김선정

김혁진

예술감독 3명이 선임됨에 따라 아시아문화전당 5개원(아시아예술극장·민주평화교류원·아시아문화정보원·문화창조원·어린이문화원)의 개관준비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 감독은 문화전당 개관콘텐츠를 구체화하고 올해부터 시작될 개관 준비작업을 진행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자체 예술감독 선임위원회 등 내·외부 추천을 거쳐 예술감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www.dkc.ac.kr
내실빵빵 ‘신나는 교육’ 개성톡톡 ‘멋있는 체험’ 실력짱짱 ‘탐나는 인재’
광주광역시에서 38년동안 5만5천여 동문을 배출한 명문사학
취업에 강한 대학 동강대학교
201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 원서접수기간 : 2013.12.23(월)~2014.1.10(금)
• 입학상담 : (062)520-2552~5
※ 2014 국가장학금 및 대출 신청 기간 : 2013.12.19 ~ 2014.1.14 (한국장학재단)
○ 2013 교육역량 우수대학(교육부) ○ 창업보육센터 11년 연속 최우수 평가(중기청)
○ 해외 어학연수 및 현지학기제(미국,필리핀,말레이시아,대만) ○ 2013 간호학과 수업연한 4년제 승인(교육부)
○ 학생 64% 장학금 지급(국가장학금 포함) ○ 2013 교원양성기관평가 유아교육과 최우수등급(교육부)
동강대학교 (구 동신전문대학)
500-714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두암동 771)
TEL : (062) 520-2552~5, FAX : (062) 520-2559
자매학교 동신대학교
광주동신고, 광주동신여고
광주동신중, 광주동신여중
동강대학교부설동강유치원